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세 꺾이나

27일 신규 확진 11명 중 9명이 자가격리중 발생
향후 며칠 방역이 중요... 격리자 관리 집중해야

제주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에 대부분 발생하면서 집단감염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현재 완화 지점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어 당분간 강화한 방역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정부와 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숙박업소와 렌터카 등에 대한 예약 취소로 위약금 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관광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다시 두자리 수로 늘어난 도내 신규 확진자=28일 오후 5시 기준, 전날인 27일 제주 신규 확진자 11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92명이다. 이날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는 234명, 격리 해제 확진자는 158명이다.

도내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 줄곧 두자리 수를 기록했고, 26일 7명으로 줄었으나 이날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확진자는 한라사우나 2명(383·391번), 동백주간활동센터 1명(382번), 흥익보육원 1명(386번),

김녕성당 2명(384·385번), 대기고 학생 관련 3명(387·388·389번), 확인 중(390·392번) 2명 등이다. 11명 가운데 9명은 자가격리 중에 양성판정을 받았다.

배종면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자가격리자 중에서 발생해 집단감염에 따른 확산세는 다소 '경계점'에 있어 앞으로 며칠 방역이 중요하다"며 "또 행정요원과 격리자간 1:1로 연결돼 관리가 이뤄지며 이들을 통한 추가 확산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 3시30분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방문 이력이 있는 이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예약 취소 위약금 놓고 소비자·업계 갈등=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가속화로 정부와 제주도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숙박업소 예약률 50% 제한' 등 고강도 방역방

침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여행 취소에 따른 '환불' 사태가 소비자와 관광업계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와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해 주도록 업계에 안내하고 있지만 제각각 적용되면서 소비자와 관광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 접수 코너에는 환불문제로 따른 민원이 올라와 있다. 제주의 풀빌라를 예약했으나 정오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여행을 포기하면서 취소 수수료 100만원을 넘게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도는 "코로나19로 여행 취소 위약금과 수수료 관련 사안은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련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24~27일 성탄절 연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만6622명으로 전년(17만4837명)보다 61.9% 줄었다. 숙박업소 예약률도 전년 9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렌터카 가동률도 40% 수준에 그쳤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12월의 유채꽃밭에서 추억살기. 맑은 날씨를 보인 28일 서귀포시 성산읍 한 유채꽃밭에서 관광객들이 노란 물결을 이룬 유채꽃을 배경으로 웨딩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민 95% 환경기여금 도입 "찬성"

(사)제주와미래 설문, 68%는 '도민 제외 모든 입도객 징수'

관광객을 포함한 입도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 제주지역 거주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반대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존정책 강화를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제주와미래연구원(원장 송창우)은 최근 2주간(12.1~14) 도내 거주 성인 558명(편의추출)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관광객과 유입인구 증가로 나타난 부정적 요소에 대해 응답자들은 ▷'쓰레기·하수 증가'(309명, 55.4%) ▷'자연경관 훼손'(115명, 20.6%) ▷'교통체증 유발'(96명, 17.2%)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직업별로는 1차 산업 종사자(73.7%)와 블루칼라층(58.1%)의 비중이 컸다.

또한 응답자의 95.2%(531명)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4.8%(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에 반대' 하는 의견은 직업별로 관광업 종사자(17.7%)에서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

유로 '제주도의 환경보존정책 강화를 통한 해법 마련'(48.0%, 12명)이 주를 이뤘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관광보전기여금 징수 방식에 대해 '제주도민 제외한 모든 입도객'(362명, 68.2%)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도내 관광객이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 대상(도민 제외) 징수'(71명, 13.4%) ▷'제주도민 포함,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63명, 11.9%) ▷'호텔 및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도민 제외)'(23명, 4.3%) ▷'공영관광지 이용 관광객(도민 제외)'(10명, 1.9%) 등의 순으로 나왔다.

백영탁기자

학생 확진자 속출에 '단기방학' 검토

어제 오후 기준 학생 38명·교직원 4명 연이어 확진
기말고사·겨울방학 등 예정된 학사일정 차질 우려

제주에서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14일 단기방학'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학생 38명·교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는 5명(학생 3명·교직원 2명)이며, 나머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도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등교중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말고사와 겨울방학 등 예정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말고사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잇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기말고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부터 24일 사이 기말고사를 치르려다 연기한 학교

는 10개교(중 8교·고 2교)다.

도교육청에서는 기말고사를 내년 1월 중으로 완료, 예정대로 겨울방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주간의 등교중지가 끝난 뒤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시험을 치러도 감을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뤄진 기말고사는 대부분 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등교 재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14일 단기방학을 실시한 뒤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초·중·고 겨울방학은 대부분 내년 1월 초·중순에 풀려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연말 연시 제주도 폭설·한파 예고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듯

연말 연시 제주도에 폭설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기상청은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29일 밤부터 1월1일까지 제주지역에 강한 한파가 몰아치고,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은 29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30일과 내년 1월1일 사이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30일에는 낮 최고기온마저 2~4℃ 머물고,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0~2℃에 그치면서 이번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나타낼 전망이다.

또 이 기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6~8℃ 더

낮을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폭설도 예보됐다. 기상청은 29일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급격히 낮아진 기온에 30일부터는 눈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눈은 1월1일 잠시 그쳤다가 5일 다시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가 최고 50cm, 해발고도 200~600m인 중산간 지역이 15cm다. 제주도 해안에도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후원 및 명예의전당 등재 문의 064-753-370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를 모시고 초록우산 명예의전당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p>그린노블클럽 1억원 이상 개인고액 후원자</p>	<p>그린아이서포터즈 월 10만원 이상 정기 후원자</p>	<p>기업, 단체 후원자 5,000만원 이상 기업,단체 후원자</p>	<p>30년 이상 장기후원자 30년 이상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p>
<p>우리家 나눔가족 온 가족이 나눔에 동참한 후원가족</p>			

‘초록우산 명예의전당’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제주시 오남로 20, 2층)에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는 제주도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자들의 대표 모임으로, 재단의 아동복지사업 지원, 후원자 개발, 봉사 및 기부활동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